

|| 치 사

반갑습니다.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이었지만, 그 만큼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어느새 뜨거운 여름을 향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푸르른 날, 우리는 이 곳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 축제’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범종단적인 자성과 쇄신을 위해 5대 결사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5대 결사에 대한 서로의 마음가짐을 나눈다 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대 결사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고민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현장에서 실천하고 헌신해 온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교 본연의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사소한 것에서도 생명의 존엄을 발견하게 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음까지 나누게 하여 나눔의 정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종교의 다름과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손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5대 결사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해 온 선봉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실천과 다름 바 없는 5대 결사는, 한국불교를 넘어 이웃과 민족, 나아가 전 인류를 아우르는 공생의 진리입니다.

10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아이템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선조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계승 보전한 1,700년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전통문화, 자연과 함께하는

탈우공양과 해우소의 철학을 마음으로 전하고, 물질 만능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산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정신의 삶으로 크게 위로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인간을 아끼는 민족의 정서가 숨쉬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으며, 바로 우리나라를 온전히 담고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가꾸어 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한국불교의 새롭게 나아가야 할 모습이자, 미래입니다. 그 발전과 성공의 길에 바로 스님과 사찰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이 스며있기에 불자들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템플스테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한국불교 여러 종단과 문화관광부, 지역 관공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불보살님께 기원드리며, 여러분을 위한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불기 2555(2011)년 5월 30일

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